

‘광주 청년 드림수당’ 받고 취업문 여세요

월 40만원씩 6개월 지급
올해 총 1100명 대상
6월1일까지 온라인 접수

광주시가 6월1일까지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생활비를 지원하는 ‘광주청년 드림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청년 드림수당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매월 40만원씩 6개월 동안 수당 형태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지역 미취업청년 월 평균 생활비

40만원, 구직 준비기간 12.7개월 등 광주시가 실시한 ‘광주청년 계층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청년드림수당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지역 청년단체의 적극적인 요구를 반영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TF를 운영해 지원규모와 기준,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후에 사업의 세부 내용을 수립했다. 또 내년부터 국가 단위로 전면 확대되는 청년구직활동비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과정을 거쳤다. 청년참여자와의 심도있는 상담·교육 병행하기 위해 1차 500명, 2차 600명으로 나누어 올해 총 1100명을 지원한다.

광주 청년 드림수당 신청 조건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학교졸업 후 미취업 청년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원,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 각종 정부사업 현재 참여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사전신청과 서류접수를 병행한다. 제출 서류에 대해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받은 후 25일부터 개별 안내한다. 신청 사이트는 광주청년드림 홈페이지(누리집 www.gj3dreams.modoo.at)다.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구직활동 계획서를 종합 심사한 후 6월 12일까지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고, 16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시는 광주청년 드림수당 지급에 따라 제출하는 구직활동 보고서에 대한 개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철 시 청년정책과장은 “광주청년 드림수당은 조사연구 등 객관적인 정책근거, TF 등 의견수렴, 유관기관 협의 등 긴 시간을 거쳐 준비됐다”며 “올해 지원을 통해 광주지역 청년의 특성을 더 세심히 파악해서 내년 고용노동부 전면 시행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 청년층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 6월부터는 청년드림통장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초등생 가족 농촌체험

둘째·넷째 토요일 운영

광주시와 농협중앙회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2일 광주시 북구 평도들 내 무등산 평촌마을에서 올해 첫 ‘도시가족 주말농부 농촌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등학생을 둔 가족 40여 명이 참여해 수레국화 등이 핀 꽃길을 걷고, 친환경 쌀 채소를 수확했다. 마을에서 생산한 콩을 반죽해 두부과자를 만들고, 무등산 숲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2014년 7월 광주시와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한 ‘도시가족 주말농부 농촌체험’은 연간 15회 이상을 목표로 광주시민이 농촌마을을 방문하고 영농체험과 수확체험,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총 11회에 걸쳐 520명 참여했다. 올해는 5월부터 11월까지 둘째, 넷째 토요일에 개최하며, 초등학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차 농촌체험은 오는 26일 개최하며, 신청 접수는 14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와 NH여행홈페이지(www.nhtour.co.kr)에서 접수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PD 20명, 오월 광주 체험 광주시의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한 한국독립PD협회 회원 20명이 지난 11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당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80년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위대한 항쟁의 의미를 되새겼다. 독립PD협회원들은 지난 10일부터 1박2일 기획답사 프로그램 ‘5월 광주와 남도의 맛을 만나다’에 참여해 전통문화관, 화산 적벽 등 광주의 주요명소와 우수한 문화자원 등을 둘러봤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찾아가는 위생진단 컨설팅’

광주시가 직접 음식점을 찾아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시정해주는 ‘찾아가는 위생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14일부터 28일까지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중 이용객이 많은 경양식,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28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개반 20명의 전담반을 구성했다. 접대반은 현장에서 ‘세균오염감사기’ 활용해 음식점 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와

조리장의 미생물 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 세척·소독 방법 ▲식품의 보관기준 및 유통기한 표시관리 방법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요령 ▲조리장 방충·방서 시설 관리 ▲외부 가격표시제 이행 방법 등도 점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 안전관리 수칙, 위생 점검 체크리스트, 식중독 예방 관리요

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나눠주고 음식점 전설서비스실현운동도 실시한다. 황인찬 시 식품안전과장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쾌적한 외식 환경 조성과 진철한 손님맞이가 매우 중요하다”며 “광주를 찾는 외국인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고, 상담자 명단이 확정되면 개별 안내문을 받아 정해진 시간에 일일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 3월에는 7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6명이 상담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매월 출수 달에 진행할 예정이며, 상담 신청 현황 등을 참고해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의료사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8일까지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협회 춘계세미나 및



‘광주 지하철 2호선 효율적 준비를’

광주도시철도공사 세미나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는 지난 11일 광주시 서구 마북동 본사에서 ‘2018년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SE)협회 춘계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철환 SE협회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타 지역의 도시철도 SE 적용 사례 등 도시철도 기술 혁신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영상 TUV 라인드코리아 박사는 “안전무결성 레벨(SIL: Safety Integrity Level) 도입 프로세스에 의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통해 도시철도의 품질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경전철 신림선의 박진재 팀장이 시스템엔지니어링 적용과 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

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제와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남중 광주도시철도공사 SE사업팀장은 ‘도시철도와 SE 적용 방안’토론에 패널로 참여, SE 추진 방향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의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김성호 사장은 “2호선 운영에 대비, 도시철도 선진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SE협회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력을 갖추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템엔지니어링(SE)이란 차량, 신호, 검수, 전기, 통신, 궤도 등 도시철도 하부시스템들의 기술적 연계 호환 및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체계적인 통합 관리와 성능을 사전 검증하고 관리하는 컨설팅 사업을 말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의료사고 분쟁 상담 18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13일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초청해 오는 28일 시청 2층 복직건강국 민원상담실에서 일일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일상담소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는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중재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8일까지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합 자치구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고, 상담자 명단이 확정되면 개별 안내문을 받아 정해진 시간에 일일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 3월에는 7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6명이 상담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매월 출수 달에 진행할 예정이며, 상담 신청 현황 등을 참고해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의료사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8일까지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빛고을 안전체험관’ 공사 사업자 입찰 공고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3일 “오는 202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의 전사·체험시설 설치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이어 23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40

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제안서를 접수한 후 7월 초 제안서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추진을 마치고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건축분야는 2019년 6월 착공을 시작으로 최종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